

## 브라질 “카니발 취소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는 브라질에서 올해 초 카니발 축제를 취소하지 않은 것을 탓하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카니발 축제는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부터 거리행사가 열리면서 막을 올렸고, 축제 분위기는 3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브라질의 유명 의사인 드라우지우 바렐라는 전날 브라질 일간 플라지 상과올루에 올해 초 카니발 축제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가 열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렐라는 초기에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보건 당국이 예방조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카니발 축제가 열릴 당시 브라질에서는 보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주장이



▲ 지난 14일 브라질의 주요 부처 각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위). 지난 축제 기간 리우 시에서 벌어진 거리 카니발 축제 모습(아래).

제기됐다. 실제로 카니발 축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법부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한 6대 도시에만 3천 600만 명이 몰리는 등 역대 최대 인파가 축제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위험은 카니발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묻혔다.

브라질 전국상업연맹(CN C)은 올해 카니발 축제 기간 매출을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2조2천200억 원대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2천540만 명의 고용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보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는 과감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탈리아 국민 300만 명 수입 없이 버티는 중



▲ 마스크를 쓰고 콜로세움 앞을 지나가는 이탈리아 시민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소 300만 명의 이탈리아 국민이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수도 로마 인근 비테르보 지역에 있는 투시아대의 조사 결과 이탈리아 전체 인구 6천만 명 가운데 3분의 1인 2천100만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천800만 명이 연간 평균 1만5천 유로(약 16,000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육박하는 760만 명은 연 6천유로(약 6,500달러)도 채 안 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0만 명은 소득이 전무해 세무당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인원으로 분류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 달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비필수업소·사업장 잠정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해당 업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수입이 끊겨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들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연구팀은 이런 사례에 속하는 노동자 수가 3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월 600~800유로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나 당장의 수입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봉쇄 조치는 일단 내달 3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 걸프 산유국, 코로나19·저유가에 국채 발행 행렬

걸프 지역 산유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저유가에 따른 재정 위기에 대비해 잇따라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7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국채를 5년 만(25억 달러), 10년 만(15억 달러), 40년(30억 달러) 등 3가지 종류의 만기로 발행했다. 40년물은 그간 걸프 산유국이 발행한 달러 표시 국채 가운데 만기가 가장 길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유동성 공급을 늘리려고 국가 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0%에서 50%로 올려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력을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이번 국채 공모에 발행 금

액의 8배에 가까운 540억 달러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카타르 정부도 이달 7일 100억 달러 규모로 5년물(20억 달러), 10년물(30억 달러), 30년물(50억 달러) 유로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카타르의 국채 공모에는 250억 달러의 주문이 접수됐다.

비슷한 시기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정부도 70억 달러 규모로 국채를 3개 만기로 발행했다. UAE의 국채공모에도 250억 달러 규모로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달 1일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판매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이번 국채 발행에 40개국 투자자 400곳이 250억 달러 규모의 매수 주문을 냈다고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